



- 새와 짐승의 보호 -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효과적 관리

그동안 인간위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생태계, 남획 및 남채로 인해 많은 야생동식물이 멸종을 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도 있다. 자연이란 서로간에 공생, 공존 해야만 Eco-cycle이 유지되어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절제없는 행동으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어 생존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이 늘어나 그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현 상황과 효과적 관리에 대해 논해보았다.



우한정 /
한국자연보존협회 사무총장

서론

생명체는 크든 적든 또는 개체수가 많건 적건 간에 태어 날 때부터 나뉠대로의 역할과 생존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에 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실감난다.

근년에 이르러 인간 위주의 개발, 파괴, 남획과 남채는 고귀한 생명을 이름도 짓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살충제의 살포와 물의 오염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여 하루에도 수십 종에서 수백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사실 인간도 생물 종의 하나이며, 그들과 공존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몇몇 동물을 제외하고는 언어의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두면 생명을 유지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개체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야생 조수

사람은 왜 야생의 새와 짐승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인간은 하루에 평균 60~70k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더욱 아미노산의 구성상 이중 1/3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성 단백질의 부족은 아마도 인류 발생의 초기에서 현재까지도 인구의 제한 인자로 작용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구해왔을까?

근년에 이르러 인간 위주의 개발, 파괴, 남획과 남채는 고귀한 생명을 이름도 짓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살충제의 살포와 물의 오염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여 하루에도 수십종에서 수백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무척추동물은 환경이 좋으면 급격히 증식하게 됨으로 환경이 정비되어 있을 때는 상당량의 인구를 지켜 왔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작고 또 계절적 변동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척추동물 중에서도 물고기는 잡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대부분은 생활 필수 자원으로서의 동물성 단백질을 야생 조수에 의존해 왔다.

인간은 털이 없고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몇 차례에 걸친 빙하기를 어떻게 지내 왔을까?

새와 짐승의 털과 깃털 및 고기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후 야생 동물을 사육하여 털을 이용하게 되었

고 가죽과 가금을 길러 동물성 단백질을 채웠다. 그러면서도 야생의 조수류와 대립하면서 인간은 오늘 날까지 살아왔다.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리학적 특징을 바꾸지 않는 한 새와 짐승 및 기타 동물들을 죽여서 스스로를 지탱한다는 숙명은 피치 못할 것이다.

『새와 짐승은 죽여야만 우리에게 효용을 준다』라는 것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야생의 조수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라져 간 새와 짐승

J. Fisher(1969)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사라진 조수와 사라져 가는 조수를 다음 표 1)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포유류는 3.7%, 조류는 3.23%가 절종 및 절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V. Ziswiler(1967)은 포유동물중 이미 절종 39종, 위기종 206종을 들고

표 1) 세계적으로 사라진 조수와 사라져 가는 조수

종 류	기 록 종	사라진 종	사라져 가는 종	J. Fisher (1969)
포 유 류	4,226 종	36	120	156 종 3.7 %
조 류	8,684 종	94	187	281 종 3.23 %

있다. 이를 분석하면 487%가 절종 또는 절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와 짐승은 끊임없이 절종 또는 절종 위기에 처해 가고 있으며, 근년에는 가속도로 격감 또는 절종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소의 원인

천재지변과 기후의 급변 등 자연 재해는 새와 짐승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피치 못할 운명이다. V. Ziswiler는 야생 조수의 감소에 대하여 인위적인 영향을 21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고기, 지방, 가죽, 알 등을 이용하기 위한 수렵
- 고기와 모피를 이용하기 위해 스테리바다소(Hydrodamalis gigas)는 절종되었고, 물범과 바다사자, 고래류, 알바트로스, 큰바다오리 등의 절종과 감소

- 스포츠, 레저, 기념품 제작, 무역을 위한 수렵
- 미국바이슨, 코끼리, 코뿔소, 바다거북 등의 절종과 격감
- 미신, 증거 없는 해수 구제, 효과 불명의 약용
- 알프스아이벡스(Capra ibex), 곰, 코뿔소, 사슴 등의 절종과 감소
- 벌채, 단일 농작물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
- 여우원숭이, 아이아이(Daubentonia madagascariensis), 인드린(Indri indri), 오랑우탄, 오기나와딱다구리, 크낙새의 절종과 격감
- 이입 동물에 의한 동물상의 교란
- 양, 토끼, 여우, 망구스, 족제비, 고양이, 개, 누트리아 등의 생태계 파괴
- 이입 동물에 의한 전염병의 감염
- 인도당나귀는 말, 멧돼지는 집돼지, 늑대는 개 등 이입동물에서 전염병의 전파, 구멍토끼의 박멸

을 위해 점액종병의 살포로 절종 또는 절종위기
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의한 고기, 가죽, 모피, 장식품과 사육 동물의 이입 및 서식지 파괴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 나라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 담수어류와 바다짐승의 보호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는 척추동물을 일본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사라졌건,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 22.3%, 조류 13%, 파충류 27.6%, 양서류 25%, 담수어류 19.3%이고, 전체적으로 703종중 146종이 절종위기에 있어 16.5%이다.

표 2) 척추동물의 위기종 실태 비교 (한국 : 일본)

한국자연보존협회(희귀 및 위기 동식물)

구	분	기지종	절종종(Ex)	위기종(End)	취약종(Vul)	희귀종(Rare)	계
포유류	한국	94	1	8	4	8	21
	일본	118	5	3	11	36	55
조류	한국	414	—	23	—	31	54
	일본	668	13	27	27	65	132
파충류	한국	29	—	—	4	4	8
	일본	85	0	1	2	13	16
양서류	한국	16	—	1	1	2	4
	일본	95	0	2	4	8	14
담수어류	한국	150	1	3	7	18	29
	일본	207	2	16	6	17	41
계	한국	703(16.4%)	2	35	16	63	116
	일본	1,173(22%)	20	49	50	139	258

일본은 1,173종중 258종이 기록되어 22%가 절종위기에 놓여 있다. 비율 면에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포유류 22.3~46.6%, 조류 13.0~19.8%, 파충류 27.6~18.8% 양서류 25~14.7%, 담수어류 19.3~19.8%, 전체 16.4~22%로 조류, 포유류는 일본이 훨씬 절종위험종이 많고, 담수어류는 비슷하며, 양서류와 파충류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위험에 처했다.

일본사람은 양서·파충류를 식용, 약용으로 쓰지 않으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절종과 감소가 적은 것에 비하여 한국인은 정력, 강정제 등 마구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국제적 추세

야생 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ITES),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철새의 이동에 관한 조약, 습지보전조약, 국제포경취체 조약, 철새의 이동에 관한 조약 등이 체결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로써 IUCN, ICBP, IWRB, WWF, UNESCO 등 기구에서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적 조치 및 보호대책

야생 동식물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수산청, 문화재관리국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보존적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야만 효율적인 보존이 강구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특정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을 관리하고 백두대간을 잇는 동물의

이동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다목적산림경영을 명목으로 민간자본을 들여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 지역에 전국 최대의 스키장을 계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파괴될 때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야생동식물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수산청, 문화재관리국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보존적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야만 효율적인 보존이 될 것이다.

개발과 이용에 앞서 보전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자연지역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전, 복원과 보존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 계획은 수없이 수정, 보완되었으나, 보전에 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보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때는 늦었지만 완전한 국토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 론

I. N. Gabrielson(1992)은 “이제야 야생조수는 완전히 인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란 표현의 참뜻은 야생조수에 대한 살생, 쟁탈의 권리가 인간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야생조수의 절

멸은 명확히 인간의 실책이며, 태만이란 것을 경고한 것이다.

한편, 야생조수가 급격히 증식되어 유해로 작용을 일으키게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관리 소홀이라고 경고하는 말이다.

가장 실감이 있는 것은 나그네비둘기의 절멸과 미국바이슨의 회복

이다.

인간은 야생조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 절멸되어 가는 야생조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 절멸되어 가는 야생조수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황새, 따오기, 크낙새, 호랑이, 표범 등은 이제 야외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우리들은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예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